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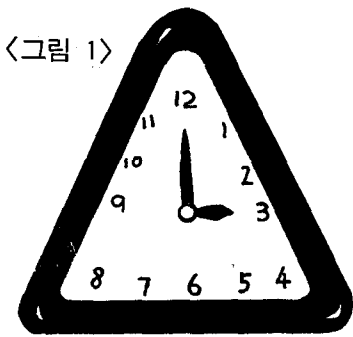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강 신 목
〈새생각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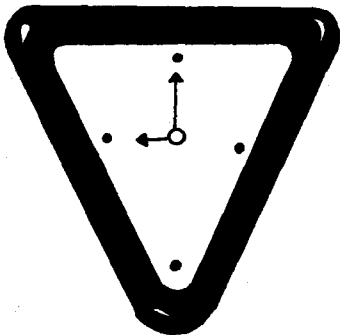
삼각형 시계, 역삼각형 시계

등근 시계, 모난 시계, 길쭉한 시계, 시계 한 가지만 해도 그 모양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 다른 시계를 만들려면 삼각형 시계<그림 1>를 다만 거꾸로 한 역삼각형 시계<그림 2>로 하는 것만으로도 새 멋이 풍기는 멋진 발명이 된다. 삼각형 그대로 뒤집어 역삼각형으로 하면 새로운 느낌이 들게 되잖은가! 어떤 것이나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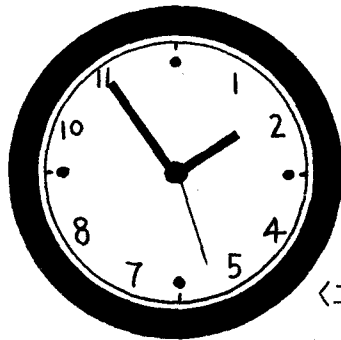
거꾸로 해 보아 좋은 효과만 낸다면 바로 발명이 된다. 생활을 즐겁게 해 주는 일은 발명보다 더 나은 것도 드물다.

발명을 하면 첫째 머리가 좋아지고 둘째, 사회에 보탬이 되고, 셋째, 이름이 남고, 넷째, 돈 벌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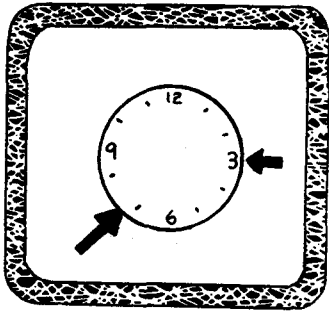
거꾸로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발명에 보탬이 된다.

등근 시계, 네모 시계

흔한 재래식 등근 시계<그림 3>와 네모 시계<그림 4>를 견주어 보자. 어디가 다른지 따져 따져 보면, 문자반의 크기가 다르고 양쪽의 문자도 숫자와 점이 다르다. 시침, 분침, 초침의 모양이 아주 다르고 또 등근 시계<그림 3>의 시침, 침의 모양이 아주 다르고 또 등근 시계<그림 3>의 시침, 분침, 초침은 문자반 위를 돌아가지만, 네모 시계<그림 4>는 시침, 분침, 초침이 문자반 바깥쪽에서 돌고 있다. 바늘의 방



<그림 3>



<그림 4>

향도 밖에서 안쪽을 향한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

쓸모보다는 불품으로 만들어진 시계가 바로 네모 시계다.

어떤 물건을 보면 거꾸로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자.

거꾸로 발명 속에 기적도 나타난다.

불투명 볼펜, 투명 볼펜

불투명하던 것을 투명하게 한 것만으로도 쓸모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른다. 안보이게 된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발명이 된다.

사람은 속이 보이면 모자라 보인다. 볼펜은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볼펜이 매우 편하다. 왜 그럴까? 글씨를 쓰다가 볼펜심의 잉크가 떨어지면 큰 걱정이 된다. 불투명 볼펜은 속이 보이지 않아 언제 잉크가 떨어질는지 몰라 항상 고민하던 것을 몸체를 투명하게 한 투명 볼펜 덕분에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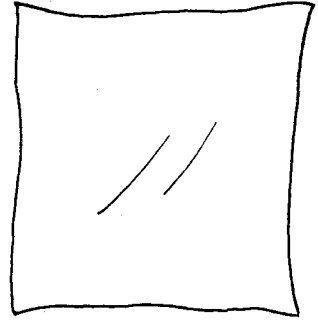
불투명 색소도 절약되면서 잘 보이는 효과까지 있으니 이게 바로 일거양득이 아닌가.

투명 비닐, 불투명 비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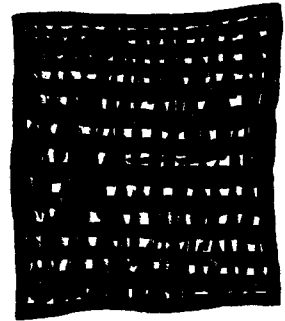
비닐 필름은 농사짓는 데도 많이 쓰이고 있다.

투명 비닐 필름<그림 5>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기도 하고 밭에 갈아 잡초도 못 자라게도 한다. 또 검은 불투명 비닐 필름<그림 6>을 만들어 햇빛이 못 들게 하여, 가려진 잡초의 산소 동화작용을 막아 잡초의 성장을 막고 또 검은

색은 햇빛을 많이 받아들여 땅의 열을 높여 농작물이 빨리 자라게 도와 주었다. 투명해서 좋은 볼펜이 있는가 하면 검정 비닐처럼 불투명



<그림 5>



<그림 6>

해야 좋은 것도 있다.

하늘 아래 완전무결한 것은 없다고 하듯, 어떤 발명품도 완전무결한 것은 없다. 좀 꼼꼼히 따져 보면 거꾸로 해야 좋을 것이 얼마든지 보일 것이다.

인류 문명은 발명의 역사

인류 문명의 발달사는 곧 발명의 역사라고 하겠다. 발명은 국가 부강의 근원으로 서양 문명은 발명때문에 앞서고 있다. 발명은 문화의 추진력으로 잠시도 숨쉬지 않으면 죽고 마는 공기처럼 고마운 것이 발명이다.

제임스 왓트의 증기 기관 발명은 영국을 산업혁명의 종주국으로 치켜세웠고 나아가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해양대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영국도 미국의 왕성한 발명력에 눌려서 지금은 이등국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지 않

왔는가!

그러나 발명왕 에디슨을 정점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해 세계 제일의 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마저 약삭스럽게 거국적으로 전 국민이 발명에 힘쓰는 일본에게 차츰 그 자리를 빼앗기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국력은 발명력과 정비례하는 것으로 일본의 특허출원량은 놀랍게도 세계 출원량의 30%가 넘어 세계 제일이며, GNP(국민 총생산)도 세계의 12%나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 되고 말았다.

우리 나라는 세계 6위의 특허 출원국에 올라섰으며 더욱 더 정진하면 머지않아 세계 제일의 출원국이 될 것이다.

발명은 이제 모든 교육 중 도덕 교육과 함께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 가정, 학교, 기업, 그리고 전국민이 함께 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말았다. 발명은 숨이 곧 넘어가려는 기업의 소생재이며, 맨손 알몸뚱이에서 입신 출세의 여의봉이며, 백만장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미국에서 롤러 스케이트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백만달러의 특허료를 받았다. 구두끈 매기가 귀찮아 지퍼를 고안한 게으름뱅이 사나이가 실용신안으로 해 그 권리금을 60만 달러에 팔았다. 착화탄을 고안한 운영감씨는 흥인 시장의 대표이사이며 교육재단도 설립했다. 돈을 벌겠다고 몸을 써서 덤빈다면 아무리 튼튼한 장사라도 한계가 있지만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로 나아간다면 무한으로 갈 수 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며 훈련하기에 따라 자꾸 좋아진다.

대화는 훈련 방법으로 매우 좋다.

누구라도 백권의 책을 한 시간에 읽지는 못하지만 백권의 책을 읽은 사람과 한 시간만 대화하면 그의 지식을 흡수할 수 있다.

남은 나에게 있어 지식의 정리 서랍이다. 발명력을 높이려면 발명가와 대화를 자주 하라. 그리고 발명 운동가의 지도와 조언을 자주 들어야 한다. <♣>

광고게재 안내

본회에서 매월 발행하는 「발명특허」는 회사, 유관단체, 개인 등 전국적으로 폭넓은 독자층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내용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발명특허」는 귀사의 이미지 및 제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광고를 접수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내용 : 기업 및 제품 소개

• 광고지면 : 표2, 표3, 표4, 내지

• 금액 (1회)

(부가세 별도)

표2	표3	표4	내지(원색)	내지(단색)
60만원	60만원	80만원	40만원	20만원

• 마감일 : 매월 20일

• 광고 접수처 : 본회 발명진흥부 회지담당자
(555-6845, 568-8267)